

겨울의 매력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삿포로시 러시아국제교류원 Elena Zrelva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러시아국제교류원 엘레나입니다.

삿포로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으로 각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라일락 축제, 요사코이 소란 축제,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 비어가든, 삿포로 오텀페스트, 눈 축제 등 다양한 연중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삿포로시민에게도 어떤 계절이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제게 삿포로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 30 도를 밑도는 저의 출신지, 노보시비르스크에 비해 삿포로의 겨울은 짧고 따뜻합니다. 이렇게 지내기 좋은 겨울을 제대로 즐기지 않으면 아깝지 않을까요?

즐겁게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삿포로 눈축제, 온천, 윈터 스포츠 등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11 월 하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 월 24 일까지 오도리공원 2 초메에서 개최되는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입니다. 이 이벤트는 삿포로의 자매도시인 뮌헨시의 연중행사 ‘크리스마스 마켓’을 삿포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삿포로시민에게 뮌헨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02 년 양시의 자매도시 체결 30 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이벤트입니다.



(사진: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 in Sapporo)

이벤트 회장에서는 흰 소세지, 글루바인 등 독일의 명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소 좀처럼 외국의 문물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분께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끽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계신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수제 크리스마스 장식, 독일에서 수입해온 밀랍캔들, 이벤트 회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굿즈를 살 수도 있고 스노우돔 만들기, 캔들 만들기 같은 체험도 가능합니다.



(사진: 삿포르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또, 오도리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동시에 ‘삿포르 화이트일루미네이션’이 개최됩니다. 새하얀 눈과 다채로운 빛이 대비되어 삿포르 시내가 아름답게 물듭니다. 이 시기의 오도리공원은 크리스마스 음악과 맛있는 독일요리의 냄새, 눈이 쌓인 삿포르만의 경관이 선사하는 크리스마스의 마법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마음 만큼은 따스해집니다.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미사여구를 써보아도 직접 가보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마켓의 매력을 알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가보면 동화 속이나 나올 법한 분위기에 매료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 시기의 삿포르, 오도리 공원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